DOI: https://doi.org/10.25202/JAKG.9.1.4 한국지리학회지 9권 1호 2020(51~65)

# 지리교육에서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네시스(Phronēsis) 개념의 적용

홍서영*

# Application of the Aristotle Phronēsis Concept to Foster Ecological Citizenship in Geography Education

Suh-Young Hong*

**요약 :** 오늘날의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지리교육에서 새로운 시민성으로 생태시민성 개념의 도입이 중요하다. 생태시민성은 의무와 책임이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생태 위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내적인 동기유발과 실천이 환경적 정의에 기초해 발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지적 덕인 프로네시스(phronēsis) 개념은 삶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각 개인의 분별과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교육에서 생태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철학적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을 제시하고, 프로네시스가 생태시민성 육성의 개념적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네시스의 개념을 적용한 생태시민성 육성의 과정을 크게 목적의 설정, 내적 동기유발 그리고 습관의 형성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선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생태시민성, 프로네시스(phronēsis), 생태시민, 시민성, 지리교육

**Abstract :** To solve today's ecological crisi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cological citizenship as a new citizenship in geography education. Ecological citizenship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f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even on the private sphere of the individual. This ecological citizenship is a concept that presupposes that an individual's internal motivation and practice to solve problems of community problem arising from an ecological crisis should be expressed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With the intellectual virtue presented by Aristotle, the concept of phronēsis refers to each person's ability to discern and judge in the context of life. In this paper presented Aristotle's concept of phronēsis as a philosophical basis for fostering ecological citizenship in geography education and explored whether phronēsis could be a conceptual basis for ecological citizenship. To this end, the process of fostering ecological citizenship by applying the concept of phronēsis was largely considered as setting goals, inducing internal motivation, and forming habits. Through this, it was considered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can be realized.
Key Words : Ecological citizenship, Phronēsis, Ecological citizen, Citizenship, Geography education

## I. 서론

오늘날 지구는 생태학적으로 임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지난 수십 억 년 동안 발생한 것 보다 지난 20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지구상에 일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주은정, 2016). 이러한 생태 위기[1]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인류 문명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인간의 예측범위를 넘어선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현재의 생

*서울청구초등학교 교사(Teacher, Seoul Cheonggu Elementary School, kristine@korea.ac.kr)

태 위기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의 양식이나 사고구조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박지원 · 김회용, 2015; 김기환 · 김오석, 2019). 따라서 생태 위기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태 위기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 온난화나 미세먼지와 같이 전 지구적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생태 위기가 다수 발생하여,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모색 시 기존 국민국가 스케일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초월한 새로운 시민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조철기, 2015).

이러한 새로운 시민성[2] 개념의 등장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의 생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중시하며, 도덕적 영역을 강조하는 '두터운 시민성(thick citizenship)'(Faulks, 2000; 김희경, 2012)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강조는 과거의 공화주의적 시민성이나 자유주의적 시민성 개념에 대한 변화를 유발한다(김소영 · 남상준, 2012). Leopold(1991)는 현실적으로 환경의 보전이 중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실천'이란 생태적 소양을 갖춘 개개인이 새로운 형태의 생태 시민성을 함양해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글로컬 시대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재는 초국가적인 지구 온난화 등의 생태 위기에 기존 국민국가 체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을 필요로 한다. Thomashow(1995)는 새롭게 변화하는 시민성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생태 인식(ecologically aware)을 가진 시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생태 인식을 가진 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의 생태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며, 공동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의미한다(김소영 · 남상준, 2012). 이들은 전통적인 국민국가적 공동체를 벗어나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이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지구적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성인 생태 시민성은 기존의 시민성 개념에 환경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민성의 틀을 필요로 한다(김소영 · 남상준, 2012). 하지만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비해 지리교육[3]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시민성의 개념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꾸준하게 이어졌다(Dobson, 2003; 2007; 박순열, 2010a; 2010b; 김병연, 2011; 김소영 · 남상준, 2012; 김희경, 2012; 2018; 홍서영, 2019). Dobson(2003; 2007)은 공화주의적 시민성이나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비교를 통해서 생태시민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박순열(2010b)과 홍서영(2019)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생태시민성 인식 유형을 구분했으며, 김병연(2011)은 지리교육에서 생태시민성의 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태시민성 연구의 층이 두텁지 않고, 연구의 범위 또한 다양하지 않으며, 지리교육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생태시민성 논의는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에만 집중할 뿐이며,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김희경, 2018).

전지구적 생태 위기는 결국 공동체의 문제이며, 지리교육에서 새로운 생태시민성을 다룰 때는 이와 같은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중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태시민성 논의는 이와 같은 내재적 동기의 유발보다는 환경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강진영, 2019). 따라서 새로운 시민성인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생태시민의 자질로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내재적인 도덕적 성품의 함양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생태시민으로서 생태 위기를 숙고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 작용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개념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법적 수단이나 경제적 인센티브와 같은 강제적인 외재적 가치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내적 동기와 덕의 형성을 유발하지 못한다(Dobson, 2007). 따라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닌 공동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덕의 실천 및 내적 의지의 유발이 요구되는데, 이때 내적 의지와 덕의 실천에 대한 철학적 근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phronēsis)[4]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을 바탕으로 덕의 실천을 위한 친환경적 습관 형성과 이를 위한 지리교육의 실행 방안 그

리고 프로네시스를 통한 학습자의 내적 동기유발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프로네시스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무엇이 최선인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적 탁월성을 뜻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프로네시스 개념을 통해 지리교육에서 생태시민성 논의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며,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지리교육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 II. 시민성 개념의 변화

### 1. 시민성의 유형

시민성은 불변의 개념이 아니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투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특성을 나타낸다(조철기, 2016). 시민성의 유형은 공동체와 시민 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뉠 수 있다. 조영달(1997)은 공동체와 시민 간에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시민성의 개념을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의 권리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이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에서 시민이라는 지위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지위이며,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진 천부인권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된다. 반면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는 관점이며,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와 관련성이 깊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시민 개개인의 개인성(individuality)은 공동체로부터 나온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의무가 강조된다.

Dobson(2003)은 권리-책임, 공적-사적, 덕목-비덕목, 영역적-비영역적의 4가지 차원에 중점을 두어 시민성을 자유주의적 시민성, 공화주의적 시민성, 탈세계주의적 시민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표 1).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 외에 Dobson(2003)이 새롭게 규정한 탈세계주의적 시민성은 국민국가의 스케일을 초월하거나 혹은 국민국가 아래의 공간 스케일과 시민성의 관계를 탐색한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가 시민을 위한 유일무이한 것일 수는 없다고 본다(조철기, 2016). 공식적인 권리 혹은 의무가 초국가 수준에서 혹은 로컬 수준에서 부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보다 강조하는 시민성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1에서와 같이 Dobson(2003)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탈세계주의 시민성은 개인의 의무를 중시하되 그 기반이 되는 공간 스케일이 국민국가의 영역을 초월하거나 로컬적 스케일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Painter and Philo, 1995; 조철기, 2016에서 재인용). 최근의 생태 위기는 고전적인 시민성의 개념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국민국가가 시민성의 개념적 기초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Sassen, 2002). 즉, 국민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생태 위기가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작용하며, 이의 대응을 위해 다중적 시민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조철기, 2016).

### 2. 새로운 시민성인 생태시민성의 등장

기존의 시민성 논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크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위와 권리의 시민성 및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실천과 의무의 시민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근대 시민성의

**표 1.** 시민성의 개념 구분

| 자유주의적 시민성<br>(liberal citizenship) | 공화주의적 시민성<br>(civic republican citizenship) | 탈세계시민주의 시민성<br>(post-cosmopolitan citizenship) |
|---|---|---|
| • 계약상의 권리 | •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 | • 비계약상의 의무와 책임 수행, 관계성 |
| • 공적 영역 | • 공적 영역 | •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 |
| • 자유, 상호호혜성 | • 공동선, 상호호혜성 | • 배려, 정의, 비상호적인 호혜성 |
| • 영역적(국민-국가)-차별 | • 영역적(국민-국가)-차별적 | • 비영역적-비차별적 |

출처 : Dobson, 2003; 조철기, 2016.

개념들은 생태계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김찬국, 2013). 기후 변화 등 초국가적 생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더 이상 한 국가가 단독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시민성의 개념에 변화를 요구하였다(김병연, 2011). 즉, 기존에 논의되는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공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의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된 생태적인 시민성 개념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새롭게 제시된 시민성의 개념을 생태시민성이라 할 수 있다(Dobson, 2003).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탈세계주의 시민성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생태시민성에 대해 Dobson(2003)은 생태시민성이 탈세계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이는 생태발자국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미래 세대라는 시간적 특성을 고려하는 비영역성(non-territoriality), 의무와 책임을 권리보다 먼저 고려하는 비계약성, 배려 · 연민 · 동정 등의 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이 생태 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넘나듦이다. 시민성에 대한 Dobson의 이와 같은 새로운 정의는 생태 위기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결 과정과 그 실행에 있어서도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기초한다. 즉, 현 세대와 국가 그리고 인간이라는 경계를 극복해 생태적인 책임에 대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확장을 추구한 것이다(조미성 · 윤순진 2018).

김병연(2011)은 이와 같은 생태시민성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첫째, 생태시민성은 비영역성을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다양한 생태 위기가 발생하며, 이러한 생태 위기의 대부분은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생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비영역성과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생태 위기는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국가의 영토를 초월하여 모든 당사자가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시민성의 논의들은 이러한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생태시민성은 시민의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한다. 생태시민은 비호혜적이며, 불균형적이고, 시공간적 그리고 물질적 관계성에 기반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김찬국, 2013). 따라서 생태시민성은 권리의 주장보다는 의무를 가지는 개인을 추구하는데, 이는 시민 개개인의 행위로 발생되는 환경적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은 인간 외 생물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태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까지 확장된다(Dobson, 2003). 이때 생태시민으로서 각 개인은 단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수행한다.

셋째, 생태시민성은 공적 영역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즉,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공적 영역에서 국한되었던 시민성 발현의 장소가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적 영역은 생태시민의 중요한 활동 영역이 된다. 각 개인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 타인에게 그리고 인간 외 생물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시민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다는 점에서 일견 공화주의적 시민성과 그 개념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생태시민성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고, 인간 외 생물종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로 그 관심을 확대한다는 차별성을 가진다(Dobson, 2003; 김희경, 2012). Dobson(2003)은 생태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 개념을 통해 글로컬화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간 행위자 및 비인간 행위자 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논의는 생태 위기를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태시민의 양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생태시민성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

### 1.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프로네시스 개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며,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최고선을 행복(eudai-

**표 2.**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덕의 개념

| 영혼 | 세분화 | 하위 영역 | |
|---|---|---|---|
| 비이성적 부분 | 식물적 부분 | | |
| | 동물적 부분 = 욕구 | 이성 < 욕구 | 자제력 없음 |
| | | 이성 > 욕구 | 성품적 덕 |
| 이성적 부분 | 지적 덕 = 지성 | 불변의 부분 | 학문적 인식(epistēmē)<br>직관적 이성(nous)<br>철학적 지혜(sophia) |
| | | 변화 가능한<br>실천적 지식 | 기술적 지식(techē)<br>프로네시스(phronēsis) |

* 심승환(2012); 홍윤경(2012); 장정아(2016); 천병희 역(2018)을 재구성.

monia)[5]이라 하였다(EN:1095a).[6] 그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비이성적 부분을 식물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였다(EN:1102b). 전자는 이성과 전혀 무관한 부분이며, 후자는 비이성적인 부분이지만 이성과 무관한 부분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인 욕구적인 부분을 '이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에 참여하는 부분'(EN:1102b)이라고 칭한다. 즉,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성을 따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욕구적인 부분은 비이성적 부분에 속하나 이성을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관 형성의 과정을 통해 이성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장정아, 2016).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이 영혼의 욕구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을 성품적 덕이라고 칭했으며,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을 지적 덕이라고 불렀다.

이때 덕(virtue)은 그리스어 'arete'의 번역어로써 탁월함 또는 최선을 뜻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나 잘한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탁월성이 바로 덕인 것이다(장정아, 2016).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덕이 주로 교육에 따라 생겨나고 성장하는데 그러자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EN:1103a). 한편 성품적 덕은 습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만약 성품적 덕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습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품적 덕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본성에 반해 생겨나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화함으로써 완성된다'(EN:1103a)고 보았다. 이와 같은 덕의 개념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덕인 지성을 학문적 인식(epistēmē), 직관적 이성(nous), 철학적 지혜(sophia), 기술적 지식(techē), 프로네시스(phronēsis)로 나눈다(EN:1139b). 학문적 인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음가짐(EN:1139b)이며, 직관적 이성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에 대한 판단(EN: 1140b)을, 철학적 지혜는 학문의 근본적 원리에 대한 참된 인식(EN:1141a)이고, 기술적 지식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제작 활동과 관련된 지혜(EN:1140a)를, 프로네시스는 인간의 좋음과 관련해 행동하는 이성적이고 참된 마음가짐(EN:1104b)을 의미한다. 학문적 인식과 직관적 이성, 철학적 지혜는 변하지 않는 대상을 다루는 인식들이고, 기술적 지식과 프로네시스는 변할 수 있는 대상을 다루는 지적 덕이다. 전자의 세 인식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나, 후자의 두 인식은 대상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장정아, 2016). 이렇게 볼 때 학문적 인식, 직관적 이성, 철학적 지혜는 지적 덕이기는 하나, 덕을 형성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덕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유덕하지 못한 사람을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학문적 인식이나 직관적 이성, 철학적 지혜는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기술적 지식 또한 대상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덕을 형성시키지는 못한다. 기술적 지식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것은 프로네시스 뿐이다. 그러므로 프로네시스가 인간의 덕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장정아, 2016).

즉, 다섯 가지 지적 덕 중에서도 인간 생활의 실천 및 행동 그리고 숙고와 관련된 덕이 프로네시스인 것이다(장정아, 2016).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삶의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올바르게 숙고할 수 있는 사람'(EN:1140a)이다. 프로네시스는 이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 각 개인의 분별과 판단을 강조한다(심승환, 2012). 따라서 프로네시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불확정적인 요소를 잘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체하는 지혜로써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을 중재할 수 있으며, 맥락이 의미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Blake *et al.*, 2003). 이를 통해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맥락을 다루는 모든 문제는 바로 프로네시스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에 대한 교수와 학습은 학문적 인식 및 기술적 지식과도 관련되지만 프로네시스는 인간 삶의 맥락에서 구체적 문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보다 좋게 만드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덕의 실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심승환, 2012).

## 2. 생태시민성과 프로네시스의 연관성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정한 관점에서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삶의 일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올바르게 숙고할 수 있는 사람'(EN:1140a)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은 현대의 생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생태시민성 그리고 이를 함양해야 하는 교과인 지리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프로네시스는 지속가능한 삶 또는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숙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며,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인간-자연의 관계'(Pattison, 1964)와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프로네시스가 '인간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과 관련하여 행동하는 참되고 이성적인 마음가짐'(EN:1104b)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연관성을 강조할 수 있다.

Dobson(2007)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을 개인과 단체 그리고 조직의 변화라고 보았으며, 변화의 방향을 크게 행동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그는 행동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조조의자(structuralist)', 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voluntarist)'로 나누었다. 구조주의자는 대중의 변화를 위해 먼저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 위기의 극복을 위해 경제적 ·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는 대중의 행동과 태도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구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대중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원인을 보다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복잡한 망으로 본다.

Dobson(2007)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입안 시 구조주의자의 견지에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음을 주장하였다. 즉, 세금의 혜택이나 벌금의 부과 등의 조치[7]는 대부분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틀을 바꾸는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대중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들의 대부분이 인간을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간주한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일견 냉정해 보이나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대중은 세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러한 규제가 중지되었을 때 그 행동을 지속가능한 행동으로 습관화시킨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8] 즉, 일시적 혜택이나 세금의 부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생태 위기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에 반대하는 Jackson(2005)은 친사회적 태도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숙고의 과정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 행동 변화를 탐색하는 참여 위주의 공동체 기반 과정이 대중의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Beckman(2001) 또한 사람들은 때때로 공포(처벌이나 손실)나 욕망(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보다는 도덕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중의 행동과 태도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며, Dobson(2007)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공공선에 대한 대중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매일의 삶을 위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환경적 공간인 생태발자국을 위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 기반이 될 때 생태 위기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태시민의 자발적인 도덕적 행동의 추진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이다. Dobson(2007)이 제시한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중요시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에 기반한 정의로운 행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덕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덕의 형성 및 덕의 실천을 위한 숙고의 과정이 프로네시스라 할 수 있다. 프로네시스는 '인간의 좋음과 관련해 행동하는 이성적이고 참된 마음가짐'(EN: 1104b)이며, 이러한 마음가짐은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태도 변화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삶의 목적을 최고의 선인 행복의 추구로 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외적인 좋음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며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덕스러운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EN:1101a)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인간의 내재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태시민성에서 시민의 태도 변화를 위한 도덕적 책임과 내재적 태도를 성립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Connelly(2006)는 외부적으로 동기 유발된 환경적 행동이 분명히 필요하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외부적 동기는 대중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가능하지만 총체적 행동 문제의 교착 상태 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수단과 경제적 인센티브 외에 적절한 내재적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는 내재적 태도 변화를 위한 덕은 좋은 삶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다고 보고, 이의 실행을 위한 내부적 에르곤(ergon)[9]뿐만 아니라 외부의 목적인(telos)[10]이 필요하며, 생태시민성에서의 목적인을 지속가능성이라고 주장하였다(Connelly, 2006). 즉, 이러한 Connelly의 주장은 프로네시스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생태시민성 논의에서 그 목적을 지속가능성으로 상정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과 프로네시스의 역할 탐색

### 1. 생태시민성 함양에 있어서 프로네시스 적용의 가능성 모색

우리 사회는 덕성의 계발을 위한 교육보다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 더 많이 주목해 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장정아, 2016). 지리교육 또한 지식적 측면에 주로 방점을 두었으며,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인간-자연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Pattison, 1964; 김다원, 2019). 따라서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앞으로의 지리교육[11]은 사회 체계와 자연 체계를 결합하는 접근(권영락 등, 2015)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인간의 활동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현상으로도 해석(이두곤, 2016)할 수 있는 시민, 즉 쟁점적 성격을 드러내는 문제를 다루며 점차 앎 · 지식과 실천 · 행동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강진영, 2019).

이를 위해서는 지리교육의 전반에서 학습자들이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Hart *et al.*, 1999; 김찬국, 2013에서 재인용).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적 동기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종들의 필요와 요구까지도 공감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 감수성이 필요하다. 지구라는 행성은 유기체들이 얽혀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김소영 · 남상준, 2012). 즉, 지리교육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학생들의 내적 동기유발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감수성을 기반으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행복과 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정의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적 정의는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시민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김소영 · 남상준, 2012). Connelly(2006)는 정의가 생태시민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생태시민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이와 같은 환경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 언급하였다. 이는 Rawls(1999)가 '진실은 생각의 체계이기 때문에 정의는 사회적 구성의 첫 번째 덕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생태시민으로서 현재의 생태 위기에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파악하고, 그 맥락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대칭적 구조로 인해 다수의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때 생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내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지적 덕인 프로네시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네시스는 인간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르침과 배움은 무엇보다도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다 좋게 만드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프로네시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심승환, 2012). 또한 프로네시스는 실천에 관한 사고로써 삶의 목적에 대한 본질과 방법을 논리적으로 관련지어 올바른 이치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기에 생태시민성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생태시민으로서 학생들이 가지는 공감적 이해는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힘'(EN:1143a)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정의를 분별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네시스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동시에 공동체의 행복과 선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심승환, 2012; 홍윤경, 2012; 방진하, 2016). 따라서 프로네시스의 관점에서 교육은 그 행위 자체가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심승환, 2012). 즉,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은 개개의 기술적 지식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이다(EN:1140b). 따라서 프로네시스를 가진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숙고할 수 있는 시민(EN:1141b)이며, 이는 생태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 2. 지리교육에서 프로네시스를 적용한 생태시민성 육성의 과정

프로네시스는 삶의 맥락에서 개개인의 행동을 삶의 목표인 최고선 즉, 행복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지적 덕이다. 따라서 프로네시스는 인간이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실천적인 개념이다(손병석, 2000a). 하지만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프로네시스가 저절로 나타나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생태시민으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능력과 더불어 습관화된 올바른 행동을 통해 생겨난 덕스러운 품성 상태인 성품적 덕이 필요하다. 결국 덕스러운 행동은 행위자가 지적 덕과 성품적 덕을 기반으로 합리적 선택을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장정아, 2016).

그러나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며, 합리적 선택할 만큼 지적 덕이 계발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미성숙한 학습자가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성품적 덕을 통해 삶의 맥락에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지적 덕을 계발하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까지 정의롭고 윤리적인 판단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품적 올바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프로네시스의 형성을 위한 숙고와 선택의 과정은 개인의 성품적 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성품적 덕이 프로네시스를 형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장정아, 2016).

학습자가 프로네시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덕스럽기 위해서는 생태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숙고와 선택의 과정 및 목적이 덕스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교육의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12]을 받아야 한다. 학습자는 지리수업을 통해 인간-환경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적 행동양식에 대해 교사의 덕스러운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모방된 덕스러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물론 모방을 통해 행해지는 학습자의 친환경적 행동은 덕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왜 덕스러운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좋은 행동인지를 이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덕스러운 성품과 프로네시스를 조금씩 형성하게 된다(장정아, 2016).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덕스러운 행동들을 맛보게 된다면 학습자는 이러한 행동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의 실천을 즐기게 될 것이라 말하며, 교육을 통한 덕성의 계발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덕스러운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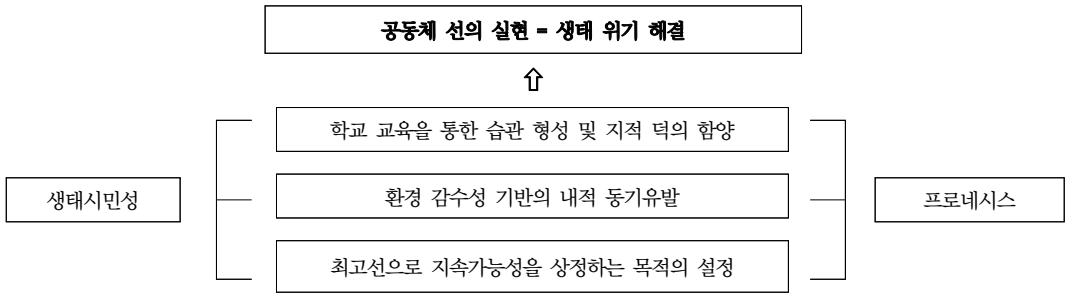


**그림 1**. 지리교육에서 프로네시스를 적용한 생태시민성 육성의 과정

동의 모방과 이의 습관화를 통해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성품적 덕을 형성하고, 동시에 학교 지리교육을 통해 지리 지식 즉, 지적인 덕을 함양해 자신의 프로네시스를 계발할 수 있다. 이렇게 계발된 프로네시스는 학습자의 생태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지리교육에서 프로네시스를 통한 생태시민성 육성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프로네시스를 생태시민성의 중요한 기제로 상정하였을 때 지리교육에서 생태시민성 육성은 크게 목적의 설정, 내적 동기유발 그리고 습관 형성의 세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프로네시스는 지리교육의 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설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onnelly(2006)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기초해 생태시민성의 궁극적인 목적인을 환경적 선의 추구 즉, 지속가능성이라 주장하였다. 이렇게 지속가능성을 생태시민성의 목적으로 두었을 때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episteme, theoretical knowledge) 위주의 지리교육은 더 이상 효용성을 가지지 못한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지식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위한 가치·태도의 형성 및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프로네시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과 가치 · 태도, 실천의 숙고를 도울 수 있는 기제가 된다.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좋고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삶 일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올바르게 숙고하는 사람(EN:1141b)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숙고는 현재의 생태 위기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설정된 '목적을 향한 수단'들을 검토하는 과정이다(손병석, 2000a).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숙고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것(EN:1141b)이라 하였다. 결국 지리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행하는 숙고의 과정은 생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숙고를 통해 학습자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프로네시스는 숙고와 선택의 단계를 거쳐 실천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손병석, 2000a). 결국 지리교육 전반을 통해 학습자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으로서 행위하게 하는 원리는 프로네시스인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네시스는 인간이 주어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인간의 행위나 실천과 관련되는 것(손병석, 2000a)이기에 지속가능성을 지리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둘째, 프로네시스는 지리교육의 과정에서 생태 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위한 학습자의 내적 동기유발을 도울 수 있다. 생태시민성 육성의 과정에서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은 교사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인 선호에 의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환경 감수성[13]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지리교육의 과정에서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 학습자들이 함께 고민하여 실제로 실천한 경험은 학습자의 환경 감수성을 자극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까지 자발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생태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소영 · 남상준, 2012). 이때 프로네시스는 대상을 변화 혹은 개선시키며, 개별적 행위들과 관련하고, 유덕하지 못한 사람이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작용하는 요소이다(장정아, 2016). 프로네시스는

성품적 덕의 육성을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자 내면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즉, 내재적인 동기가 형성되지 못한 학습자에게 내재적인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영혼의 과정이 프로네시스인 것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을 통한 프로네시스의 계발은 그 자체로써 학습자의 내적 동기유발의 과정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내재적 환경 감수성의 유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생태시민성 함양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지리교육을 통해 친환경적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태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를 인간 영혼의 이성적 부분에 속하는 지적 덕 중 하나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프로네시스가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쳐질 수 있음[14]을 의미한다(홍윤경, 2012). 그는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에서 나타나는 욕구가 잘 교육되고 습관화된다면 이성을 따를 수 있으며, 이때의 상태를 성품적 덕의 발현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본성적으로 타고나지 않는 성품적 덕은 습관을 통해 형성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생태시민성에서의 습관은 친환경적 행동 실천의 습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은 본성적으로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습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지리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및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 과정은 학습자의 습관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친환경적 행동이 학교 지리교육의 과정을 통해 습관화되었을 때 그 개인의 성품적 덕이 바르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성품적 덕은 프로네시스의 형성을 위한 전제이기에 또한 개인적 생태시민성의 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태시민성은 과거 시민성의 논의와 달리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의무와 실천 또한 강조한다(Dobson, 2003). 프로네시스는 개인 내면의 성품적 덕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태시민성의 이와 같은 영역 확장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학교 지리교육을 통해 습관화된 성품적 덕을 기반으로 학습자는 자신들의 사적 영역에서도 능동적으로 덕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선에 대한 숙고와 선택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 시민이 가진 실천적 지식이 프로네시스라 할 수 있으며, 프로네시스는 그 목적인을 지속가능성으로 하기에 공동체의 최고선인 생태 위기의 해결을 위해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프로네시스의 계발보다는 지식의 전달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태시민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적 목적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홍윤경, 2012).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가 바르게 형성된 개인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Hirst, 1998; 유재붕, 2006; 방진하, 2016). 인간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프로네시스이며, 이는 생태시민성 함양을 가능하게 하는 철학적 토대이다. 인간의 좋은 선택은 도덕적으로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교육에 의해 달성 가능하다(방진하, 2016). 따라서 프로네시스에 기반한 생태시민성의 개념은 지리교육을 통해 현대의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 V. 결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태 위기는 매우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성이 요구된다. 생태 위기의 해결을 위해 능동적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민성을 생태시민성(Dobson, 2003)이라 하며, 이러한 생태시민성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까지 시민성이 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기존의 시민성 개념과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인의 내적 동기유발과 공동체 선의 실현 과정에서 개념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의 필요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프로네시스 개념은 개개인이 내면의 지적 덕과 성품적 덕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최고선의 실현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생태시민성에서 볼 때 최고선은 지속가능성(Connelly, 2006)이며, 프로네시스는 생태시민이 최고선을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민성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의 내적 작용과 공동체 선의 구현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김희경, 2018; 강진영, 2019). 따라서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지리교육에서 생태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그 목적으로 설정하고 생태시민성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태시민이 갖추어야 할 생태시민성은 권리

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데, 이때 개인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각 개인의 내적 동기유발은 쉽지 않은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은 이러한 내적 동기유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해 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가 교육과 습관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보아 학교 지리교육의 과정에서 친환경적 태도의 습관화를 통해 학습자의 생태시민성이 계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교육에서 프로네시스를 적용한 생태시민성 육성의 과정을 크게 목적의 설정, 내적 동기유발 그리고 습관의 형성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체 최고선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즉, 지리교육의 과정에서 생태 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체의 최고선과 관련하여 숙고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프로네시스를 가진 실천적 생태시민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Dobson(2007)은 행동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태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은 학습자의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성품적 덕을 그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는 생태 위기 해결에 있어 행동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 사이의 질문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프로네시스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숙고와 선택의 과정임과 동시에 이를 위한 내적인 동기유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프로네시스의 개념은 목적보다는 수단이 중요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이는 각 개인의 삶의 권리보다는 인류 공동체 및 생물 공동체 모두의 선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성의 개념적 토대를 제시한다. 프로네시스는 인간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다 좋게 만드는 지적 덕이며,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합리적 숙고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옳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합리적 과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환경적으로 옳은 숙고와 선택 그리고 실천의 과정은 프로네시스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프로네시스의 형성이 생태시민성 육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네시스는 이성에 기반한 지적 덕으로 인간-환경의 관계 및 생태 위기에 대한 지리적 지식 함양의 토대가 되며, 교사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학습자의 모방과 이의 습관화에 의해 형성되는 성품적 덕을 통해 생태시민으로서 학습자의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의 덕스러운 품성 상태를 뜻하며, 이와 같은 내적 작용이 이루어진 개인은 생태시민성을 바르게 갖춘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교육에서 생태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철학적 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을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리교육에서 나아가야 할 생태시민 육성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생태 위기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적 변화가 절실한 지금 이러한 프로네시스 개념은 보다 깊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생태시민성의 다양한 논쟁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 註

1) 환경문제와 생태 위기는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적인 차이 또한 존재한다. 먼저, 환경문제와 생태 위기의 차이점은 환경과 생태계의 개념적 차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은 자연을 파악할 때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개념이며, 생태계는 인간을 그 전체 구성요소의 하나로 파악하는 개념이다(조용개, 2008). 따라서 환경 문제는 인간을 제외한 그 외 자연의 문제라는 관점이 강조되지만 생태 위기는 자연의 문제에 인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둘째, 환경 문제는 공업화에 의한 자연 파괴를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지만 생태 위기는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이상헌, 2011; 김소영·남상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적 차이에 따라 생태 위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2) 시민성은 법적인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Kymlicka and Norman(1995)은 시민성에 대

한 논의가 각기 다른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성(citizenship as legal status)'은 특정 정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의미하며, '바람직한 덕성과 활동으로서의 시민성(citizenship as desirable activity)'은 시민성을 공동체 참여와 같은 것으로 본다(김찬국, 2013; 김희경, 2018).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민성의 개념은 후자의 의미를 갖는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발전은 물론, 사회·국가·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을 이른다. 특히 사회과 지리영역은 그 핵심개념으로 '자연-인간 상호작용', '갈등과 불균등의 세계', '지속가능한 환경', '공존의 세계'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태 위기의 해결 및 생태시민성의 개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과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8:3-4, 9-10).

4) 프로네시스는 영어로는 practical wisdom, 한국어로는 흔히 실천지나 실천적 지혜로도 번역된다. 하지만 심승환(2012)은 이것이 지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탁월성이나 덕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프로네시스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프로네시스는 지적 덕인 이해력, 판단력, 숙고와 관련성을 가지며, 중용과 연관된 '품성상태'(니코마코스 윤리학 II권 및 VI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덕과 관련된 품성의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실천지'보다 '프로네시스' 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이 더 적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네시스'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5) eudaimonia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최고선으로 영어로는 happiness, welfare, flourishing 등으로 번역되며, 한국어로는 행복, 번영 혹은 발음 그대로 에우데모니아(혹은 유다이모니아)라고 통용되기도 한다. Ross(1995)는 에우데모니아가 상태가 아닌 활동이기 때문에 행복(happiness)이라는 번역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그리스어 원전 번역서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며, 그 의미도 크게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행복이라 칭할 것이다(심승환, 2012; 천병희 역, 2018).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인간다운 성품을 발현하며 사는 것 즉,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덕이 있는 성품이 갖추어지고 프로네시스가 여기에 잘 결합하여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현재 흔히 인식되는 것처럼 감각적인 상태가 아니라 덕에 알맞은 방식으로 합리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일보, 2020년 4월 17일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EN은 *Ethica Nichomachea* 즉,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의미하며, 뒤에 제시되는 숫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를 인용하거나 번역할 때 흔히 따르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베커(Immauel Bekker)판(*Aristotelis Opera*, ex recensione Immauelis Bekkeri edidit Academia Regia Borussica, Berlin 1831)의 쪽수 및 단수, 행수를 의미한다.

7) 첫 번째는 도로 혼잡 통행료 징수이다. 이는 영국의 Durham시에서 유래하였다. Durham시는 오래되고 아름다우나 시내 중심가의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다. 그래서 Durham시 정책 입안자들은 시민들이 그들의 차를 도심지로 가지고 오지 않도록 만류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도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과거에는 차를 시내 중심가에 가져가는 것이 무료였다면, 이제는 시내로 차를 가져가는 데 소액의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통해 교통량이 1년 안에 50% 이상 감축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지 몇 달 만에 교통량의 90%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였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 부과가 사람들의 환경적 행동을 실재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의 예시 같아 보인다(Dobson and Bell, 2006). 두 번째 예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사례이다.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2002년 3월 4일 플라스틱 봉투 환경부담금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서 쇼핑할 때 플라스틱 봉투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 날부터 플라스틱 봉투는 각각 15센트씩의 금액이 부과되었다. 그 결과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이 90% 이상 줄어들었으며, 연간 1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감소했다. 이 뉴스는 마치 완벽한 성공처럼 보이며, 이러한 세금 혜택은 거의 하루 안에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Dobson

and Bell, 2006).

8) 만약 미래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가 플라스틱 봉지 세금을 없앤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사람들은 쇼핑할 때 새로운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하는 습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추가 부담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지속가능한 행동으로 고정시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인가? 만약 Durham시 정책 입안자들이 혼잡 통행세를 폐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심지로 갈 때 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은 원래의 비지속가능한 행동으로 돌아갈 것인가?(Dobson, 2007).

9) 에르곤(ergon)은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나 행위, 일, 기능 등을 뜻한다. 에르곤은 흔히 기능으로 번역되나 손병석은 이를 인간의 고유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손병석, 2000b).

10) 텔로스(telos)는 끝 또는 목적, 목표를 나타내는 그리스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목적인 즉, 텔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Wikipedia).

1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과 세부 목표로 '지표 공간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의 지리 문제와 쟁점에 관심을 갖는다.'가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8). 또한 내용체계표 영역 부분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가 제시되고, 핵심개념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자연-인간 상호작용' 등이 기술되었는데 이는 지리교육이 인간-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교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2) 지리교육에서 교사의 덕스러운 행동과 지식을 모방하여 학습자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영역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성취기준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및 '[6사08-06]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9사(지리)05-0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을 비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9사(지리)10-01]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을 평가한다.', '[9사(지리)10-02]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한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9사(지리)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등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8). 이들 성취기준의 경우 정의적 영역 즉, 학습자의 내적 의지 변화가 주요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성취기준에 따른 덕스러운 행동 즉,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분리수거하기, 패스트 패션 지양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자는 지리수업을 통해 교사가 제시하는 이와 같은 덕스러운 행동들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성품적 덕을 함양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네시스를 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

13) 환경 감수성은 학습자 내면의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책임 있는 생태시민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환경 감수성은 환경을 공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공감이나 이해하려는 시각, 대상에 대한 동정과 연민 등의 감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이재붕·이두곤, 2006; 홍서영, 2018). 지금까지의 지리교육에서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학습자 변화를 고려하기 보다는 지리 지식을 보다 강조하였으나, 생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적 태도의 정립을 위해서는 생태 위기의 심각성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습관화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 감수성을 육성해야 한다(홍서영, 2018). 이때 프로네시스는 학생 개인의 환경 감수성을 신장시키고, 생태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14)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탁월성을 지식과 이해에서의 지적 탁월성(지적 덕)과 성품적 탁월성(성품적 덕)으로 구분하고, 지적 탁월성은 교육에 의해, 성품적 탁월성은 행동의 습관화에 의해 습득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홍윤경, 2012).

## 참고문헌


강진영, 2019, “교육적 ‘실천’으로서 환경교육을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 프로네시스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32(2), 127-138.

교육부, 2018,「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2018.7.27.)」.

권영락·이재영·김찬국·안재정·서은정·남윤희·박은화·최소영·안유민, 2016, “2015 개정 환경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환경교육, 29(4), 363-383.

김기환·김오석, 2019,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1), 33-46.

김다원, 2017, “지리교육의 기본개념 분석 연구: 국내외 지리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3), 319-337.

김병연, 2011, “생태시민성 논의의 지리과 환경 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21-234.

김소영·남상준, 2012, “생태시민성 개념의 탐색적 논의: 덕성과 기능 및 합의기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25(1), 105-116.

김찬국, 2013, “생태시민성 논의와 기후변화교육,” 환경철학, 16, 35-60.

김희경,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본 에코맘과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44(4), 55-57.

김희경, 2018, “우리나라 생태시민성의 특성 탐색을 위한 경험적 연구,” 환경교육, 31(1), 23-34.

박순열, 2010a,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67-194.

박순열, 2010b, “한국 생태시티즌십(ecological citizenship) 인식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4(2), 7-52.

박지원·김화용, 2015, “상상력을 활용하는 생태교육의 이론과 방법,” 교육종합연구, 13(2), 51-71.

방진하, 2016,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의 교육적 재해석,” 교육사상연구, 30(2), 71-101.

손병석, 2000a,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실천지의 적용 단계,” 철학연구, 48, 21-43.

손병석, 2000b,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에르곤(ergon) 덕(arete) 그리고 행복(eudaimonia)의 의미,” 철학연구, 76, 31-64.

심승환, 2012, “프로네시스에 담긴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8(3), 261-292.

유재봉, 2006, “허스트의 실천적 이성과 교육,” 교육철학, 36, 65-82.

이두곤, 2016, “우리나라 국가 환경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안,” 환경학교육연구, 20, 41-60.

이상헌, 2011,「생태주의」, 서울: 책세상.

이재봉·이두곤, 2006, “환경 감수성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환경 감수성 측정 –중등학교 환경반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19(3), 138-149.

장정아, 2016,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과 덕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40, 239-263.

주은정, 2016, “초등교육에서 생태적 소양의 의미,” 한국초등교육, 27(2), 417-432.

조미성·윤순진, 2018, “에너지 전환운동 과정에서 생태시민성 학습: 서울시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공간과 사회, 26(4), 190-228.

조영달, 1997,「한국 시민 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 의식」,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개, 2008,「생태학적 삶을 위한 환경윤리와 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조철기, 2015, “글로컬 시대의 시민성과 지리교육의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618-630.

조철기, 2016,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714-729.

홍서영, 2018, “환경지도 만들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탐색,” 사회과교육, 57(3), 89-104.

홍서영, 2019, “Q방법론을 활용한 초등학생들의 환경 인식 탐색,” 한국지리학회지, 8(2), 139-154.

홍윤경, 2012, “‘실천적 지식’의 두 가지 유형에 관한 고찰: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7, 193-215.

Aristotle, *Ethica Nichomachea*(천병희 역, 2018,「니코마코스 윤리학」, 파주: 도서출판 숲).

Beckman, L., 2001, Virtue, substantiality and liberal value, in Barry, J. and Wissenburg, M., eds., *Sustaining Liberal Democracy: Ecolog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Houndmills, UK: Palgrave, 179-191.

Blake, N., Smeyers, P., Standish, P., and Smith, R., eds.,

2003, *The Blackwell Guide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강선보·고미숙·권명옥·김성봉·김희선·심승환·정윤경·정훈·조우진·김상무·장지원 역, 2009,「현대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 1, 2」서울: 학지사).

Connelly, J., 2006, The virtues of environmental citizenship, in Dobson, A. and Bell, D., eds., *Environmental Citizenship*. MA: MIT Press, 49-73.

Dobson, A.,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bson, A., 2007, Environmental citizenship: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15(5), 276-285.

Dobson, A. and Bell, D., eds., 2006, *Environmental Citizenship*, Cambridge, MA: MIT Press.

Faulks, K., 2000,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Hirst, P.H., 1998, 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in Hirst, P.H. and White, P., eds., *Philosophy of Education-major Themes in the Analytic Tradition*, London: Routledge, 27-39.

Jackson, T., 2005, *Motivating Sustainable Consumption*, London: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Network.

Kymlicka, W. and Norman, W., 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Beiner, R., ed., *Theorizing Citizenship*, Albany: SUNY Press, 283-322.

Leopold, A., 1966, *Sand County Almanac: With Other Essays on Conservation from 'Round River'*, New York: Ballantine Books, Oxford University Press.

Painter, J. and Philo, C., 1995, Space of citizenship: An introduction, *Political Geography*, 14(2), 107-120.

Pattison, W.D., 1964, The four traditions of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63(5), 211-216.

Rawls, J., 1999, *The Law of Peoples: With, the Idea of Public Reason Revisit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oss, W. D., 1995, *Aristotle*, Revised 6th edition, London: Routledge.

Thomashow, M., 1995, *Ecological Identity: Becoming a Reflective Environmentalist*, Cambridge, MA: MIT Press.

Sassen, A., 2002, Towards a post-national and de-nationalised citizenship, in Isin, F.E. and Turner, B.S., eds., *Handbook of Citizenship*, London: SAGE, 277-292.

Wikipedia, "Telos", https://en.wikipedia.org/wiki/Telos (2020년 3월 27일 최종 접속)

중앙일보, 2020년 4월 18일자, "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현실적 이성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

교신 : 홍서영, 0458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0, 서울청구초등학교(이메일: kristine@korea.ac.kr)

Correspondence : Suh-Young Hong, 04589, 170 Dasan-ro, Jung-gu, Seoul, Korea, Seoul Cheonggu Elementary School (Email: kristine@korea.ac.kr)

**투고접수일: 2020년 3월 28일**
**심사완료일: 2020년 4월 13일**
**게재확정일: 2020년 4월 19일**